40과 사사 삼손 - 조경수 목사

오늘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 먼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구별 돼서 바쳐진 나실인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실인부터 한 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중에서 세 가지 그 서원이 나오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또 사체에 접촉하지 않는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희락, 그다음에 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하라는 멀리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겠다고 하는 서원이고, 그 다음에 사체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구별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하는 서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거룩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구별됐다라고 구별 된 모습으로 레위기 11장에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 되는 시작이라고 이제 보여 집니다.

이제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나실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고 그에게 주어진 강한 힘, 그 능력,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그리고 그로인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한 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아 볼까합니다.

먼저 나실인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보여야 되고 구별된 삶이 분명히 보여서 나타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그 양심 자체에 우리의 어떤 행실의 변명도 되고 송사가 되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 돼 지고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육체가 썩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드러나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양심자체가 이제 밝아져서 구원받지 않아도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 양심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으로 비춰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Porque en otro tiempo erais tinieblas, mas ahora sois luz en el Señor; andad como hijos de luz

어, 그, 저희가 하루에 해를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방이라던가 우리 집을 들어섰을 때 온, 온통 그 어둠이겠죠?

어두운 그 방이나 집을 우리가 불을 딱 켰을 때 이제 아침에 급히 나가느라고 지저분하게 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보일 겁니다.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밝아지고 나서 그 어두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치우겠죠.

우리의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은 어두울 때는 몰랐던 그것이지만 그 죄이지만 이제는 그 밝아진 후에 빛이라 그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서 밝아진 우리 양심으로는 죄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합당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Porque como el cuerpo sin espíritu está muerto, así también la fe sin obras está muerta.

그 어두울 때는 몰라도 밝아진 다음에는 지저, 지저분한 것을, 것이 보이면 당연히 치우는 것처럼 여기에 그것에 행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과 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몸으로부터 만약에 분리됐다라고 한다면 그 몸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자체는 분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별 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지, 의인의 길에 서있는 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에는 그것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의인의 길은 돋는 (해),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Mas la senda de los justos es como la luz de la aurora,
Que va en aumento hasta que el día es perfecto.

(19)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El camino de los impíos es como la oscuridad;
No saben en qué tropiezan

그 어두울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거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우리의 길은 의인의 길이고 마치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실제로 그 빛 된 생황 빛의 자녀들로 생활하는 그 자체는 어둠에 있을 때와 같지 않고 분명히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빛이 들어온 후에는 우리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 당연한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나실인 그렇게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삼손의 삶은 그 시작되는데 그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 강한 힘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사기 1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Y la mujer dio a luz un hijo, y le puso por nombre Sansón. Y el niño creció, y Jehová lo bendijo.

삼손이 어떤 강한 힘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강한 힘을 나타낼 때는 항상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또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매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나실인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형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삼손에게 그 능력을 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힘 입혀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밝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Como todas las cosas que pertenecen a la vida y a la piedad nos han sido dadas por su divino poder, mediante el conocimiento de aquel que nos llamó por su gloria y excelencia,

(4)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por medio de las cuales nos ha dado preciosas y grandísimas promesas, para que por ellas llegaseis a ser participantes de la naturaleza divina, habiendo huido de la corrupción que hay en el mundo a causa de la concupiscencia;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어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또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을 받고 나서 드디어 영광 받게 합당한 생활 그, 그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해놓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 영광받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강한 능력. 삼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Y esta es la promesa que él nos hizo, la vida eterna.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히브리서 8장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에게 가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 한 가지를 보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Por lo cual, este es el pacto que haré con la casa de Israel
Después de aquellos días, dice el Señor:
Pondré mis leyes en la mente de ellos,
Y sobre su corazón las escribiré;
Y seré a ellos por Dios,
Y ellos me serán a mí por pueblo;

하나님의 그 세울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기록 된 그 말씀

저희 마음 속에 기록한 그 말씀 그리고 저희를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보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그랬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el cual asimismo nos hizo ministros competentes de un nuevo pacto, no de la letra, sino del espíritu; porque la letra mata, mas el espíritu vivifica.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바라
Nuestras cartas sois vosotros, escritas en nuestros corazones, conocidas y leídas por todos los hombres;

(3)너희는 우리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siendo manifiesto que sois carta de Cristo expedida por nosotros, escrita no con tinta, sino con el Espíritu del Dios vivo; no en tablas de piedra, sino en tablas de carne del corazón.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우리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편지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잃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편지 역할을 해 달라

우리의 모든 행실 그 언행을 보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que Dios estaba en Cristo reconciliando consigo al mundo, no tomándoles en cuenta a los hombres sus pecados, y nos encargó a nosotros la palabra de la reconciliación.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 말씀 우리 마, 마음 그 심비에 기록하신 그 말씀 그 편지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 그 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준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 편지 역할을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한 그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편지 역할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이들과 교제하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애써서 아이들과 정말 우리한테 맡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어, 어, 우리 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다시 돌아가서요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명을 죽이고
Y hallando una quijada de asno fresca aún, extendió la mano y la tomó, y mató con ella a mil hombres.

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나귀턱뼈로다가 1천명을 죽였다는데 참 굉장한 강한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천명을 죽일 정도로 나귀턱뼈로 칠려면은 보통 힘이 아닐 거예요,

나귀턱뼈로 한 번에 한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천 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천 번을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도 아주 날카로운 뭐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나귀턱뼈라는 겁니다.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삼손은 그 손으로 나, 나귀, 그 턱뼈를 잡은 손으로 1천명을 해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그 뭡니까?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

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 그륵으로 그릇으로 준비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Acercaos a Dios, y él se acercará a vosotros. Pecadores, limpiad las manos; y vosotros los de doble ánimo, purificad vuestros corazones.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말씀하고 항상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하 어... 쓰임 받는데 준비 된 자로 항상 있는다는 거죠.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그 많은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일에 쓰임에 함당하게 선한 일에 예비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나귀의 턱뼈. 세인들의 눈에는 아무런 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귀 턱뼈인데 삼손의 손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듯이 그 홍해바다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 또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가 승리를 이끌었듯이 또 다윗의 돌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쓰였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말씀과 함께 하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선한 일에 예비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그런 승리를 보고 나서도 보면은 목마름을 바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승리감에 어떤 도취되고 그럴법한데 그 1천명을 죽인 승리 후에 승리의 그 도취감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15장

사사기 1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Y teniendo gran sed, clamó luego a Jehová, y dijo: Tú has dado esta grande salvación por mano de tu siervo; ¿y moriré yo ahora de sed, y caeré en mano de los incircuncisos?

그 승리감을, 에 만끽하지 못하는 그 만끽하기 보다는 목마름으로 심히 목마름을 바로 저 , 어, 죽어서 죽을 정도로 그 갈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 그 승리 그 강하심을 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후에 목마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아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승리감에 도취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될 겁니다.

방해가 되고 저해요인이 될 거에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낮추시고 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 예비 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끝까지 베푸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El temor de Jehová es aborrecer el mal;
La soberbia y la arrogancia, el mal camino,
Y la boca perversa, aborrezco.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어떤 행복, 우리도 남을 전도한 후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그 힘든 그래서 더 고통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해산하는 수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목마름으로 쉽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꺾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우리는 쉽게 교만해 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 이죠

이것도 한 번 이제 우리한테, 우리한테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낄만한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우리가 낮아진 그 상태에서 구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삶이 많이 어려웠을 때 구원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이제 혹간에 있지만 나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그 가운데서 저희가 구원을 받,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Jehová guarda a los sencillos;
Estaba yo postrado, y me salvó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 그 낮아졌을 때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낮아졌다고 하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거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셨으므로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이 이런 고난 이런 힘든 삶을 살까?

구원받은 그 후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후의 고난은 왜 있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영광받기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받기에 합당한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 그 영광 받게 합당한 그 영광 받게,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Mas el Dios de toda gracia, que nos llamó a su gloria eterna en Jesucristo, después que hayáis padecido un poco de tiempo, él mismo os perfeccione, afirme, fortalezca y establezca.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그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게 하는,하는 것은 온전케 하며 이 모든 것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또 굳게 하며 또 강하게 하며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

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광 받게 합당하게 그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Porque esta leve tribulación momentánea produce en nosotros un cada vez más excelente y eterno peso de gloria;

환난의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환난의 경한 것, 그것을 잠시 받게끔 우리한테 허락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보시겠습니다.

18절

비슷한 말씀이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Pues tengo por cierto que las aflicciones del tiempo presente no son comparables con la gloria venidera que en nosotros ha de manifestarse

너희가 지금은 고난안에 서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 정말 견디기 힘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할 텐데 뒤돌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장애물을 딛고 일어셨을 때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의 높아짐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높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보면 들릴라와 함께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그 미혹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나이에서 세상의 너무 풍요로운 이 유혹이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가 자랄 때랑은 사뭇 다르게 정말 우리가 지내는 거랑은 다른 그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면은 우리도 쉽게 미혹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터라서 아이들을 보면 교회학교에서의 아이들을 보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세상의 애들에 비하면 천사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어떤 격려의 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 주잖아요?

격려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antes exhortaos los unos a los otros cada día, entre tanto que se dice: Hoy; para que ninguno de vosotros se endurezca por el engaño del pecado.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해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주일에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정도 분반하는 그것으로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전화 교제도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아는데 아이들과 항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고 아이들은 거기서 많은 힘을 얻는다고 생각 합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아이들에게 왜 그랬느냐? 책망하기 보다는 격려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된 말을 우리가 준비해서 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패한 삼손을 보면은 우선은 뭐 두 눈이 뺏겨,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그 그다음에 맷돌을 돌리고 어,어 그러잖아요?

그 실패해서 머리 깎인 다음에 행보가. 근데 결국은 머리카락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 음, 구별됐던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표시 그 외형적인 표시가 일단은 없어지고 일반사람들하고 아주 똑같아 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다음에 편지 역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당연히 편지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모든 것, 그런 것이 그 시야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봤을 때 물 위를 걸었던 그 능력 모든 것이 누렸던 것인데 그 바람을 봄으로써 바람의 파도를 봄으로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보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초점 그 모든 관점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서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둠으로 그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놋줄에 매이잖아요?

우리는 먼, 먼저는 죄의 종이이었는데 거기서 풀려나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다시 뒤돌아가서 죄의 종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선택의 문제잖아요

어디에 선택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냐? 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되는 것에 종이 된다고 하는 것

로마서 6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No sabéis que si os sometéis a alguien como esclavos para obedecerle, sois esclavos de aquel a quien obedecéis, sea del pecado

para muerte, o sea de la obediencia para justicia?

선택의 기준을 아이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찾게 해주고 항상 우리가 아침에 부터 일찍 일어날 것인가? 조금 더 잘 것인가? 항상 세수를 할 것인가? 뭐 샤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를 닦을 거냐? 안 닦을 거냐?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그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되는 삶 그런 힘 된 말로 교제를 하고 그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텐데

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또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심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우리한테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신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어디에 순종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교제해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그 실패한 삼손을 통해서 맷돌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세상에 쳇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던 저희들, 아무 의미 없이 왜 이 길을 왜 인생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고 걷던 것 태어났으니까 막무가내 무작정 걷는다고 하던 것 저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걷는 그 막연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행보가 어디에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그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분명히 그런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인데 다시 맷돌 돌리는 그냥 그 제자리를 도는, 맴도는 그런 세상적인 삶

그걸 살고 있는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기도로써 드디어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하죠

사사기 1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Entonces clamó Sansón a Jehová, y dijo: Señor Jehová, acuérdate ahora de mí, y fortaléceme, te ruego, solamente esta vez, oh Dios, para que de una vez tome venganza de los filisteos por mis dos ojos.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해보겠다고 자기의 이제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그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30절에 보면

가로되 블레셋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몸 죽기 전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한 번 하고 생을 마치고 싶다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탁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을 능력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

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고 그 편지 역할 심비에 새긴 편지의 역할로써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훌륭한 아이들이, 로 이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일에 너무 학업이나 물론 학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작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성실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하는데 그러고자, 그러고자 하면은 그 은혜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이들에게 그 마음적으로 알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누리는 삶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아! 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당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 말대로 힘 있게 전해줘야, 전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념해서 아이들하고 교제해서 그 확신부터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겠다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A los ricos de este siglo manda que no sean altivos, ni pongan la esperanza en las riquezas, las cuales son inciertas, sino en el Dios vivo, que nos da todas las cosas en abundancia para que las disfrutemos.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써 정말 당당하게 누리고 너희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훗날의 상급 그리고 그 영광받기 합당한 모든 능력을 줬으니 이제 너희 행보는 가치 있는 삶의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게 되면 그 받을 후에 받을 그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이 시점에서 한 번 봤으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 안다면 아이들도 아마 사뭇 달라지겠죠?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그것을 받기에 모든 능력을 줬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그 삶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siendo renacidos, no de simiente corruptible, sino de incorruptible, por la palabra de Dios que vive y permanece para siempre

(24)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Porque:
Toda carne es como hierba,
Y toda la gloria del hombre como flor de la hierba.
La hierba se seca, y la flor se cae;

(25)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Mas la palabra del Señor permanece para siempre. m Y esta es la palabra que por el evangelio os ha sido anunciada.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주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 우리 심비에 새겨주고 편지 역할을 하게끔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정말 삶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과 같이 우리 유, 육체가 말이에요 풀과 같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계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여잡고 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친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잃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같이 거룩함에 참여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편지 역할로 충분히 살 수 있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 될 것인데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서서 이 선한 일을 행, 행하며 살 것인가? 선택을 하게 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그 세세토록 있는 죽음 건너편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갈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전파하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어떤 변화 된 삶을 어 좀 음 좀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쪽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 심비에 새겨주시고 편지 역할을 담당케 하신 주님 그 선한 일에 저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교제하매 그 자긍심을 더욱 더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로 먼저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과 교제 나눔에 준비된 교사로서 그 시간을 그 분반시간을 주 성령이신 성령님의 지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